

致辭

우리나라 史學界의 碩學 여러분!

그리고, 美術史學同人 및 有志 여러분!

一年中 가장 豐盛한 상당의 오늘 우리 고장의 文化와 傳統을 再照明하고 中原의 意味를 定立하는 中原文化學術發表會에 즈음하여 本人은 먼저 公私間 마쁘신 가운데 中原文化를 研究하시고 主題를 發表해 주시는 黃壽永 東國大學校總長님을 비롯하여 韓國美術史學會 學者 여러분과 討論에 參加해 주실 史學者 및 同人 여러분의 勞苦에 깊은 感謝를 드리면서 衷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學術發表會가 우리 고장의 文化傳統과 歷史的 史實을 概念짓는 一斑 成果가 거두어지기를 期待하여 마지않습니다.

우리 忠北은 高句麗, 百濟, 新羅가 角逐하던 地域으로서 畿湖地方이나 嶺湖南과는 달리 三國의 混合文化를 갖춘 地域이므로 그동안 國內 史學界에서는 깊은 關心을 가지고 꾸준히 調査해온 結果 堤川의 점말洞窟, 丹陽 赤城碑, 中原의 高句麗碑가 發見되어 우리나라 歷史를 바로 잡는데 큰 貢獻을 하였읍니다. 最近에는 忠州 城建設에 따라 水沒地域의 重要한 文化遺蹟地를 찾고 線을 긋는 作業을 지금 하지 못한다면 永遠히 遺失될 것 같기에 燥急한 마음으로 서두르는 것이니 이점 海諒하시고 오늘과 來日 이를동안 協助 聲援하여 주시기를 懇切히 付託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번 中原文化學術發表會가 훌륭한 結論에 이르르면 우리는 그 內容을 보다 具體化하여 우리 고장을 歷史文化의 高장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全國 各大學의 參與로 發掘調査하였으며 그 結果 南漢江을 中心으로 한 歷史와 文化의 줄기를 어렵듯이나마 類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 忠州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高句麗의 國原城이 新羅의 領土 擴張과 더불어 五小京의 하나인 中原京이 되었으며, 淸州는 百濟의 浪子谷에 西原京이 設置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 忠北은 三國時代의 要衝地였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全國有數의 各大學이 많은 努力을 기울여 忠北의 文化 歷史의 遺蹟을 發掘調査해온 功도 크지마는 지난해 부터 着手한 忠州 水沒地域 文化財 發掘調査는 그 規模에 있어서나 그 水準에 있어서나 가장 廣範圍한 調査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基礎로 하여 中原文化의 性格과 範圍 그리고 그 概念을 學問적으로 定立하려는 데 오늘 學術發表會의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中原文化圈은 中央에서 構想하고 있는 五大古都文化圈의 하나로 그 開發構想이나 計劃은 現在 中央에서 年次的으로 樹立施行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既往에 調査된 內容을 보다 學問적으로 體系化하는 것이기 때문에 行政計劃과는 다른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主題를 發表해 주실 博士님께서서는 平素 忠北과 깊은 因緣을 맺으시고 實務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시며 討論에 參加하시는 분들도 남다른 關心을 기울여 이 고장의 뿌리를 찾는 데 心血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이므로 이번 學術發表會는 다른 어느 學術發表會에서도 期待하기 어려운 明快한 結論에 倒達될 것임을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비록 研究하실 時間이 不足하고 豫算도 넉넉치 못하지만은 이번 일은 忠北의 歷史와 文化를 論議하는 次元이 아니라 우리나라 歷史와 傳統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史實을 再照明하는 것이니 만큼 始終一貫 激論이 일것으로 豫想됩니다.

한나라의 뿌리를 찾는 作業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期待하기 어렵겠지만은 큰 줄기를 그동안 調査研究에 많은 時間을 割愛하여 주시고 오 늘 發表會를 準備해주신 韓國美術史學會會員 여러분 그리고 討論者 여러분의 勞苦에 거듭 感謝와 致賀를 드리면서 여러분 앞날에 더욱 빛나는 榮光과 發展이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一九八三年 一〇月 八日

忠清北道 知事 任 成 宰